

한국 전탑의 전래와 변천과정*

임 세 권**

- I. 전탑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II. 중국의 대표적 불탑으로서 전탑의 등장
- III. 삼국 불탑의 변화와 신라 전탑의 등장
- IV. 경주지역과 안동지역의 전탑
- V. 전탑과 모전탑의 강안형과 산지형
- VI. 전탑의 구조
- VII. 맺음말

I. 전탑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전탑은 중국의 불탑을 대표하는 탑의 형식이다. 그러나 한국의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으면서도 전탑은 수에서나 분포 범위에서나 주변적인 존재임이 틀림없다. 전탑이 안동을 중심으로 한 좁은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미술사가와 건축사가

* 이 논문은 안동대학교 2003년도 특별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 안동대학교 교수.

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그러나 왜 특별히 안동에 집중되었는지, 벽돌로 탑을 쌓았다는 것이 석탑과 비교할 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경주지역에서 전탑은 왜 크게 유행하지 못하였는지 등등의 의문점이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그 모든 문제들은 어느 것도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못하였다.¹

지금까지 안동지역에서 전탑이 성행한 이유로는 양질의 화강암 생산이 다른 곳에 비해 적다든가 혹은 종파나 특정 불교 세력이 안동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과 관련 있다는 설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전탑은 안동에서만 성행한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경주지역에서도 상당히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경주지역은 뛰어난 화강암제 석탑들이 밀집 분포되어 있는 곳이므로 질 좋은 화강암의 유무가 전탑 건립의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탑이 안동지역에서 많이 건립된 배경에는 불교 자체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며, 그것은 종파든지 아니면 종파까지 가지 않더라도 특정한 불교의 세력과 관련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또한 경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전탑이 탑과 불상의 조각을 한 벽돌을 이용하여 축조한 소형 탑인데 반해, 안동 지역의 전탑은 장식성이 비교적 적고 규모는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시기적으로도 경주지역이 삼국통일 전후인 데 비해, 안동지역은 8세기 이후의 통일신라 중·후기이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볼 때 경주지역과 안동지역 사이에 전탑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경주지역 전탑과 안동지역 전탑이 서로 연결성이 적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안동지역의 전탑을 이해하려면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음 전탑의 형식과 관련된 문제이다. 전탑이 중국에서 나타난 것은 전탑 이전에 성행한 목조탑을 벽돌로 모방한 데서 비롯된다. 즉 중국의 초기 불탑은 목조로 된 다층누각(多層樓閣) 형식의 건축물이었다. 남북조시대에 등장하여 당대(唐代) 이후 본격적으로 건립된 전탑은 목탑을 충실히 본떠 축조한 것이다. 따라서 전탑은 목조건축물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안동지역에 현존하는 전탑들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곧 전탑을 알기 위해서는 목탑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중국 전탑과 한국 전탑의 관계, 경주지역 전탑

1 박홍국, 『한국의 전탑연구』(학연문화사, 1998), pp.105-120.

과 안동지역 전탑의 관계를 전탑이 건립되던 시기의 신라 불교의 형세 속에서 보고자 하며 아울러 전탑의 형식과 구조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중국의 대표적 불탑으로서 전탑의 등장

한국의 모든 불탑 형식은 중국에서 온 것이다. 중국의 불탑은 처음 목조다층누각 형식의 건축물을 본떠 건립된 목탑이었다. 현재 중국의 고대 목탑으로 남은 것은 대동시(大同市)의 응현(應縣) 목탑으로 알려진 불궁사(佛宮寺) 석가탑(釋迦塔)도¹이 유일하다.² 이 탑은 1056년에 건립된 것이니 이미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낸 고탑으로 높이가 67.3m나 된다. 응현 목탑 이외에 중국 목탑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서안(西安) 근교 부풍현(扶風縣)의 법문사탑(法門寺塔)이다. 이 탑은 현재 전탑으로 남아 있지만 본래는 후한(後漢) 환제(桓帝) 때 안세고(安世高)에 의해서 4층의 목탑으로 건립하여 불사리를 안치하였다고 전한다. 당시 사리는 나무로 짠 관곽에 넣어 탑의 기단 밑 지하에 매장하였다. 이후 당나라 태종에 의하여 631년 불사리를 모실 지하궁을 확장하고 고층의 목탑으로 중건하였다. 이 탑이 전탑으로 다시 건축된 것은 명나라 때 와서이지만 이후 지하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사리를 안치하는 것은 중국 탑의 보편적 형식이 되었으며 이를 지궁(地宮)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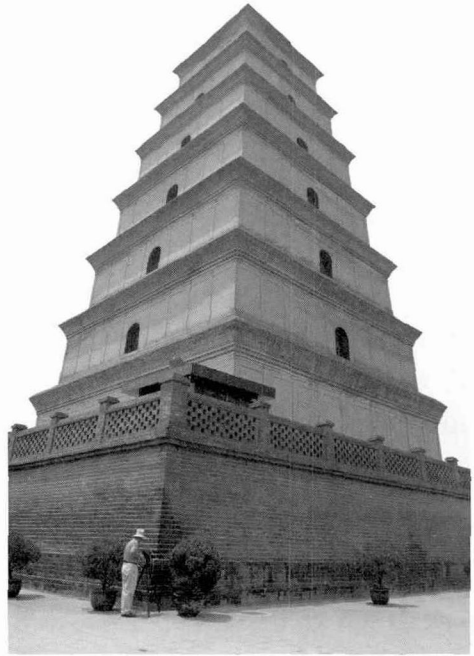
고층의 목조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뿐 아니라 유지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화재에는 속수무책일 정도로 취약하였다. 따라서 남북조시대 이후에 중국에서는 목탑을 모방한 고층전탑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랜 전탑으로는 523년 건립된 하남성(河南省) 숭악사(嵩岳寺)의 15층 전탑이다. 숭악사는 달마대사의 면벽참선으로 유명한 소림사가 있는 숭산에 위치하며 북위 선불교의 중심지였다. 숭악사탑은 내부 8각, 외부 12각으로 높이 약 40m의 고층전탑이다.

그러나 전탑이 대대적으로 건립된 것은 당대 이후이다. 당나라 수도인 장안(長安, 오늘날의 西安)에 건립된 전탑만 해도 대안탑(大雁塔)도²과 소안탑(小雁塔)을 비롯해서 흥교사(興教寺)의 현장탑(玄奘塔)과 규기탑(窺基塔), 신리승 원측탑(圓測塔), 화엄사탑(華嚴寺塔), 향적사(香積寺) 선도탑(善導塔) 등을 들 수 있다. 이때에 건립된 전탑들은 2층 이상의

² 羅哲文 張帆, 『中國古塔』(河北少年兒童出版社, 1991), pp.58-59.



도1 중국 대동시 응현 목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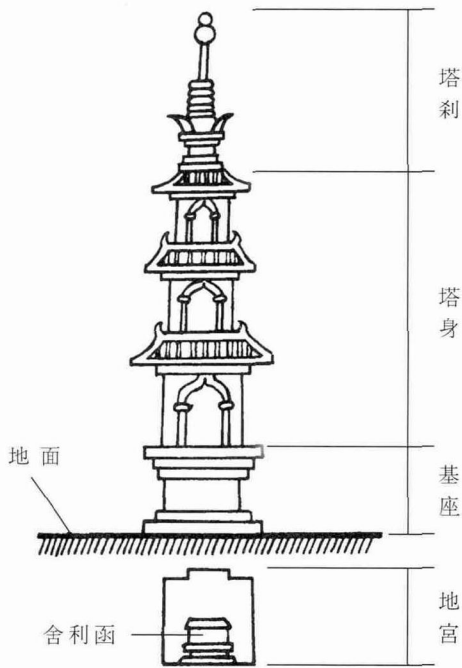


도2 중국 서안의 대안탑

옥신석이 낮아 옥개석이 겹겹이 쌓여진 듯 보이는 밀첨식(密檐式)과 고층누각을 그대로 모방한 누각식(樓閣式)이 대부분이지만 두 형식 모두 목조 누각건물을 모방한 것이다. 따라서 낮은 기단 위의 초층에는 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내부는 계단을 이용하여 층마다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층에는 채광을 위하여 창문을 내기도 하였다. 규모가 작은 것은 각층의 내부가 하나의 공간으로 트여 있는데 층마다 광창을 내는 것은 대체로 동일하다.

발굴 자료가 많지는 않으나 당대의 전탑도 사리는 지하에 매장하였으며 이러한 구조를 볼 수 있는 것으로 길림성 장백현의 발해 영광탑을 들 수 있다. 이때의 전탑의 특징은 평면이 방형이고 단층의 기단부를 가졌으며 탑신부가 누각식 또는 밀첨식을 취하였고 지하에 지궁을 설치하여 사리를 봉안하였다는 점이다^{도3}. 단층기단 위의 방형 다층전탑들이 신라에서 많이 세워졌음은 이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당대의 전탑 건립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시기에 많은 신라 승려들이 당나라에서 유학을 했으며, 이들이 귀국하는 시기와 신라에서 전탑이 세워지는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이다. 송대 이후 중국의 불탑은 평면 8각의 다층탑으로 바뀌고 층수가 많아지며 장식적 요소가



도3 중국 불탑의 기본 양식

많아 외관이 화려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대로 고려 이후의 우리나라 석탑에 영향을 미쳤다.

III. 삼국 불탑의 변화와 신라 전탑의 등장

삼국시대에 처음 등장한 불탑은 대부분 목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는 현재까지 조사된 상오리사지, 정릉사지, 토성리사지, 청암리사지, 원오리사지 등의 자료로 미루어 대부분의 불탑이 8각 다층의 누각식 목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정릉사지의 경우만 427년이라는 절대 연대가 알려져 있다. 또한 이 탑들은 시대가 오래된 것에서 후대의 것으로 내려오

면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건립 순서는 위에 열거한 대로 상오리사지-정릉사지-토성리사지-청암리사지 순서이다. 다만 원오리사지는 자세한 규모를 볼 수 없다.³

따라서 상오리사지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엽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며 토성리사지는 5세기 중엽에서 후반, 청암리사지는 5세기 말쯤으로 추정되고 있다.⁴ 이로 보아 고구려의 불탑은 불교가 들어온 372년에서 얼마되지 않아 대형 목탑의 형태로 등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고구려에서의 이러한 목탑의 건립은 같은 시기의 중국 목탑을 그대로 모방하였을 것이다.

³ 金聖雨, 「고구려사지를 중심으로 고찰한 5세기전후 불사 계획의 변화」, 『건축역사연구』 제5권 1호(한국건축역사학회, 1966), pp. 9-17.

⁴ 위의 논문.

목탑 건립은 백제와 신라에서도 볼 수 있는데 백제에서는 익산의 미륵사지와 제석사지, 부여의 군수리사지와 금강사지 등에 목탑지가 남아 있고, 신라에서는 경주 황룡사지 9층탑지와 천주사, 영묘사 등에서 삼국시대 거대목탑 건립의 수준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목탑 건립은 통일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천왕사지, 망덕사지, 지림사지, 보문사지 등의 목탑지가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전북 남원의 실상사⁵와 경기 하남의 천왕사지⁶에서도 대규모 목탑지가 발굴된 바 있어 목탑은 현재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세워졌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선시대의 범주사 팔상전과 쌍봉사 대웅전 등으로 미루어 조선시대까지도 적은 수이지만 지속적으로 건립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한국 불탑의 주류를 이루던 목탑은 7세기에 들어와서 전탑 또는 석탑으로 축조 방법과 재료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현재 백제의 대표적 석탑으로 남아 있는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석탑은 모두 목탑을 모방한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미륵사지 석탑은 석재를 목재처럼 다루면서 탑 전체가 고층누각식 목탑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구려는 목탑이 성행하다가 그대로 국가가 나당연합군에 몰락되면서 석탑이나 전탑으로 전환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였다. 고구려 말기에 연개소문이 집권하면서 도교가 성행하고 불교가 쇠퇴하는 종교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불탑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은 이와 관련되지 않을까 추정된다.

신라의 경우 목탑 이후에 등장한 것은 전탑과 모전석탑이고 통일 이후에 감은사지 3층 석탑을 대표로 하는 전형적인 3층석탑이 등장했다. 신라에서 목탑이 사라지고 전탑이나 모전석탑이 등장한 것은 선덕여왕(632-647) 때이다.⁷ 이 시기의 신라는 정치적으로는 혼란기이기도 하지만 대당외교가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문화적으로도 당의 선진문화가 빠른 속도로 들어오던 시기였다. 특히 이 시기에 많은 승려들이 당으로 유학을 떠났고 또 돌아왔다. 그런 과정에서 당의 불교문화가 신라로 전래되면서 신라에서 전탑이 건립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우리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직전인 7세기의 당나라에서 신라 승려들의 활동을 그려 볼 필요가 있다. 7세기 전반기는 600년 당에서 귀국한 원광(圓光)이 원효(元曉)와 함께 신라 불교를 이끌던 시기였으며, 원광은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며 신라가 중국의

⁵ <http://www.buddhapia.co.kr/mem/hyundae/auto/newspaper/248/f-4.htm>

⁶ <http://www.buddhapia.co.kr/mem/hyundae/auto/newspaper/315/c-14.htm>

⁷ 『三國遺事』 卷4 良志使錫에 선덕여왕 때 승려 양지가 작은 전탑을 세웠다는 기록이 전탑에 대한 첫 기록이다.



도 4 서안 홍교사에 있는 원측탑

불교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을 것이다. 7세기 전반기는 신라 승려들의 도당(渡唐) 열기가 가장 크게 일어난 시기이며 당시 혜업(慧業), 현태(玄太)를 비롯하여 상당한 수의 승려들이 당은 물론 서역 인도까지 불법을 구하기 위해 순례하였다.

당은 640년경 주변국의 왕족들을 국학에 받아들여 당의 문물이 주변국으로 전파되는데 크게 기여했는데, 신라 역시 많은 왕족들이 당에서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또한 선덕여왕 12년(643) 당에서 귀국한 자장에 의해 645년 황룡사 9층탑이 세워진 것도 같은 시기이다. 이렇게 볼 때 7세기 전반은 신라 불교에 새로운 바람이 크게 일어난 시기이며 당시 당에서 새로 건립되기 시작한 전탑도 신라에서 세워지기 시작하였을 것임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특히 정선 정암사의 수

마노탑으로 알려진 7층모전석탑도 645년 자장에 의해서 건립되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어서 자장이 전탑 건립과도 관련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승려들의 당 유학 열기는 7세기 후반에도 그대로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현장법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하는 대안탑(大雁塔)이 처음 지어진 것은 652년이며, 측천무후의 후원으로 현재의 누각식 대안탑이 된 것은 장안연간(長安年間: 701-704)이다. 처음 만들어졌던 대안탑은 토심(土心) 전탑으로 내부를 흙으로 채운 벽돌탑이었다.⁸ 대안탑이 처음 지어지고 다시 고쳐지던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반은 이 탑 외에도 소안탑(小雁塔), 선도탑(善導塔), 현장탑(玄藏塔), 원측탑(圓測塔)도4 등 많은 탑들이 만들어지던 시기이며, 그와 함께 현장이 인도에서 귀국함으로써 중국의 불교가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는 개혁의 시기이기도 했다. 이때는 이미 신라의 유학승 원측이 서역에서 돌아온

⁸ 羅哲文 張帆, 『中國古塔』(河北少年兒童出版社, 1991), p.25.

현장과 함께 역경사업을 활발히 하던 시기이며, 또 의상(義湘)이 661년 당에 건너가 671(672?)년 귀국하기까지의 시기이니 불교계의 새로운 기운과 활발히 조성되던 대규모의 전탑들은 유학승들에게는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안겨 줬을 것이며, 이는 신라에서 전탑이 성행하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IV. 경주지역과 안동지역의 전탑

7세기에 들어와 경주 일대에 건립된 전탑들은 소규모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본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없다. 경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전탑이 건립되었던 터로 알려진 유적으로는 경주 삼랑사지, 경주 금장리 사지, 청도 운문사, 경주 영묘사, 경주 덕동 전탑지,⁹ 경주 인왕동 전탑지, 경주 석장사지, 청도 불령사, 울주 농소면 사지 등이다. 이 중 석장사, 영묘사, 운문사 등의 전탑은 『삼국유사』에 선덕여왕 무렵 양지가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으며,¹⁰ 석장사는 발굴되어 실제 전탑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벽돌들이 많이 출토되었다.¹¹

이 벽돌에는 불상과 탑이 새겨져 있는데 이와 유사한 벽돌로 알려진 유적으로는 청도 불령사, 경주 인왕동, 경주 삼랑사지, 울산 농소리 사지, 창녕의 폐사지 등이 있다.¹² 이 중 불령사에는 현재 작은 전탑이 서 있으나 이는 10여 년 전 주위에 있던 벽돌을 수습하여 쌓은 것으로 원형이 아니다.

이들의 연대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겠으나 벽돌의 문양이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양지에 의해서 석장사에 세워진 전탑과 비슷한 7세기 전반기로 추정된다. 다른 탑들도 그 전후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불상과 불탑이 새겨진 벽돌을 사용한 전탑들은 대부분 경주 일대에 집중되어 있으나 남으로는 창녕, 북으로는 청도 등지까지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9 박홍국, 『한국의 전탑연구』(학연문화사, 1998), pp.60-62.

10 『三國遺事』 卷4 良志使錫, “석양지는 …… 여러 가지 재주에 두루 통달하였으며 …… 벽돌을 새겨 작은 탑을 만들고 삼천여 불상을 만들어 탑에 모셔 절 안에 두어 예배드렸다.”

11 『錫杖寺址』(東國大學校 博物館, 1994).

12 이 유적들이 전탑의 유지라는 것은 불상과 불탑 등이 새겨진 벽돌이 많이 출토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을 적극적으로 전탑지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 박홍국이다. 박홍국, 앞의 책, pp.60-89.

이러한 소형 전탑과 관련하여 경주에서 주목되는 것은 분황사 모전석탑이다. 이 모전석탑은 같은 시기에 건립된 전탑과 달리 중국의 고층누각식 전탑 형태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대형 탑이다. 현재 신라 석탑의 연구에서는 분황사 모전석탑을 최초의 신라 석탑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최초의 석탑은 왜 전탑의 형태를 취하였는가? 이것은 당시 새로운 문화로 들어오기 시작한 당의 전탑과 관련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아마도 당시 불탑은 기본적으로 전탑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었을 것이지만 분황사탑처럼 대규모의 탑을 쌓을 때 안전성이나 벽돌의 대량생산 등을 고려하여 벽돌과 느낌이 비슷한 안산암을 이용해 모전석탑을 세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탑이 먼저 조성되었는지 아니면 모전탑이 먼저 조성되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같은 선덕여왕 시기에 두 형식의 불탑이 함께 조성된 것은 분명하며, 『삼국유사』에 “565년 진(陳)의 사신 유사(劉思)와 승려 명관(明觀)이 내경(內經)을 가지고 왔으며 절들이 별처럼 퍼졌고 탑들이 기러기가 나는 것 같이 늘어섰다.”¹³ 고 기록한 것을 보면 6세기 후반에 이미 많은 탑들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황사 모전석탑이 세워지기 이전에 그리 크지 않은 전탑들이 상당수 세워져 있었음을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분황사 모전석탑을 세울 당시에 기술적이든 또는 그 외의 원인이든 거대한 탑을 세우는 데 필요한 벽돌을 생산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원인으로 전탑이 아닌 모전석탑이 세워졌을지도 모른다.

모전석탑은 석재만 쉽게 구할 수 있다면 벽돌을 구워 쌓는 것보다 훨씬 용이하게 축조할 수 있을 것이며 대형 전탑을 세우는 데 필요한 벽돌과 비슷하면서도 벽돌을 생산하는 것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석재가 있다면 구태여 벽돌을 제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경북지역 모전석탑의 유행도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주지역의 전탑은 통일 이후 3층석탑이 새로운 불탑 형식으로 자리잡으면서 점차 사라졌으며 전형적인 3층석탑에서 기단을 단층으로 또 옥개석을 계단식으로 바꾼 모전석탑(진흥섭의 제2유형, 박홍국의 석탑계 모전석탑¹⁴)이 등장하게 되었다.

경주 지역에 비해서 안동지역의 전탑은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13 『三國遺事』 卷3 興法, 原宗興法厭瘵滅身, “……天壽*(嘉)六年陳使劉思并僧明觀奉內經并次. 寺寺星張, 塔塔雁行……”.

14 모전석탑의 형식 분류에 대해서는 박홍국, 앞의 책, pp.32-33의 표 참조.

첫째, 규모 면에서 안동지역 전탑은 경주보다 좀 커진 듯하다. 경주 전탑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삼국유사』에도 양지가 작은 전탑을 만들었다고 하였고, 또 벽돌에 새긴 불상과 불탑 전각 등으로 미루어 화려한 모습의 공예품을 연상케 하는 소형 전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안동지역 전탑은 대체로 7층 높이의 대형탑으로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동지역을 대표하는 전탑은 신세동 7층전탑¹⁵을 비롯하여 동부동 5층전탑, 조탑동 5층전탑 등 3기이다. 이 중 동부동 5층전탑도 본래는 7층이었다고 『영가지』에 있으며,¹⁶ 이외에 『영가지』에 기록된 임하사 7층전탑도 역시 7층의 고층전탑임을 알 수 있다. 또 지금은 겨우 흔적만 남은 금계동 전탑도 본래는 7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안동지역의 전탑 대부분이 7층으로 되어 있는 것은 8세기 전후의 당 전탑이 대부분 7층인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⁷

둘째, 안동지역 전탑에 이용된 벽돌은 당초문이나 연화문이 있는 것도 있지만 신세동 7층전탑처럼 무문전을 사용한 경우가 많으며 경주지역처럼 불상이나 불탑 전각 등을 새긴 것은 보이지 않는다. 즉 경주지역의 소형전탑들이 불상과 불탑을 새긴 벽돌을 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안동지역 전탑들은 당초문과 연화문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무문전도 많이 사용하였다.

셋째,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대부분의 전탑 또는 모전석탑들이 주로 강에 인접한 언덕 위나 아니면 넓은 들판을 내려다보는 높은 산 위에서 있다는 점이다. 현재 안동 시내에 있는 신세동 7층전탑, 동부동 5층전탑, 임하사 7층전탑은 모두 낙동강의 우안에 닿아 있는 얇은 언덕 위에서 있으며, 영양의 봉감동 5층모전석탑과 현이동 7층모전석탑도 모두 낙동강의 지류인 반변천에 붙은 낮은 언덕 위에서 있다. 이러한 입지는 충북 제천의 장락동 7층모전석탑과 경기도 여주 신록사 전탑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모두 강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하며 홍수가 진다고 해도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 약간 높은 언덕에 세워져 있다.

안동지역 전탑 또는 모전탑이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은 경주지역의 전탑이나 모전탑과는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 준다. 이것은 안동지역 전탑이 경주지역 전탑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세워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통일 이후 신라 불교가 안동지

15 실제 위치는 안동시 범흥동이지만 문화재 명칭은 '신세동 7층전탑'이다. 이는 일제통치 시기에 이 탑을 문화재로 지정할 당시 탑의 위치가 행정적으로 신세동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16 『永嘉誌』 卷3 古塔條에 “法林寺七層塔”으로 나와 있다.

17 천득염·김은양, 「한국전탑에 관한 비교론적 연구」, 『건축역사연구』 8(한국건축역사학회, 1995), p.29.

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점에서 안동지역 전탑은 경주지역 전탑을 계승 발전시켰다고보다는 경주지역에서 불탑의 주류가 전탑에서 석탑으로 바뀐 8세기 이후에 안동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한 불탑 양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의상이 귀국한 이래 경북 북부지역에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제자들에게 의해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불교권을 형성하였다는 점은 안동지역의 전탑 건립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¹⁸

V. 전탑과 모전탑의 강안형과 산지형

안동지역이라 함은 좀 막연하기는 하지만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지역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다. 현재의 행정구획으로는 남으로는 의성군, 북으로는 봉화, 동으로는 영양·청송, 서로는 영주·예천·문경 지역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태백산맥 동쪽과 소백산맥 남쪽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분포한 전탑은 안동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현존하는 것으로 신세동 7층전탑을 비롯하여 동부동 5층전탑, 조탑동 5층전탑이 있고 흔적만 남기고 있는 것으로 금계동 전탑, 임하사지 전탑지, 옥산사 전탑지, 개목사 전탑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돌을 벽돌 형태로 잘라 쌓은 제1유형 모전석탑을 포함시킨다면 영양의 봉감동 모전석탑, 현이동 모전석탑, 삼지동 모전석탑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입지환경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전탑과 모전석탑(제1유형)을 강안형과 산지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강안형에 속하는 것으로 신세동 7층전탑, 동부동 5층전탑, 임하사지 7층전탑지, 조탑동 5층전탑, 금계동 전탑, 봉감동 모전석탑, 현이동 모전석탑 등을 들 수 있고, 산지형에 속하는 것으로 안동의 옥산사 전탑지, 개목사 전탑지, 대사동 모전석탑, 영양의 삼지동 모전석탑 등을 들 수 있다. 조탑동 5층전탑은 산간의 평지에 위치하는데 앞에는 크지는 않지만 탑의 남쪽으로 미천(眉川)의 지류인 송양천(松陽川)이 흐르고 있으며 금계동 전탑 역시 조

¹⁸ 안동지역의 사찰들은 대부분 의상 또는 의상의 제자들에게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하는데, 이는 안동의 불교가 경주의 불교에서 전파되어 온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새롭게 들어온 승려들에 의해 이룩된 새로운 불교권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탑동과 마찬가지로 탑의 남쪽으로 인접하여 하신천(下新川)이 흐른다. 이 두 하천은 큰 강은 아니지만 전탑의 입지로서는 강안형으로 분류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동지역 외의 전탑과 모전석탑도 모두 이 두 형식에 속한다 할 수 있는데 여주 신흥사의 전탑과 제천 장락리 모전석탑은 강안형이며 제천 교리 모전석탑, 정선 정암사 모전석탑은 산지형에 속한다. 이렇게 전탑과 모전석탑이 강안형과 산지형으로 뚜렷이 나뉘지는 현상은 안동지역과 그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강안형은 강변의 낮은 언덕 위에 세워져 강을 굽어보고 있으며 탑의 감실이 강을 향하여 있다. 동부동 5층전탑은 현재 안동 기차역 구내에 위치하여 탑 앞에서 강을 볼 수 없으나 기차길과 낙동강 제방이 없던 시기에는 강물이 거의 탑 앞까지 흘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세동 7층전탑은 남쪽으로 낙동강과 면하여 있는데 현재 탑 앞에는 강까지 약 20여 m의 공간이 있다.

영양지역의 봉감동이나 현이동 모전석탑들도 강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감실의 방향이 남쪽(봉감동) 또는 동쪽(현이동)¹⁹을 향하고 있다. 이는 안동지역의 전탑과 동일하다. 영양지역의 강안형 모전석탑들은 일반적으로 고려 이후 건립으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 안동지역 전탑과 비슷한 시기로 보는 견해도 있어 안동의 전탑보다 늦은 시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산지형은 대부분 높은 산 중턱의 암반에서 있으며 남쪽으로 넓은 들을 내려다보거나



도 5 산지형 탑, 영양 삼지동 모전석탑

¹⁹ 현이동 모전석탑은 감실의 방향이 동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강과 반대쪽을 향하고 있어 전탑 중에서는 예외적인 사례에 속한다.

들이 아니라도 멀리까지 탁 트인 공간을 내려다보는 곳에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탑으로서는 안동의 옥산사지 전탑과 개목사 전탑이 있으나 현재 흔적만 겨우 남아 있을 뿐이다. 모전석탑으로는 안동의 대사동 모전석탑, 영양의 삼지동 모전석탑도 5을 들 수 있다. 대사동 탑은 감실이 없고 단층탑이며, 삼지동 탑은 남으로 감실이 있고 2층 옥개석에서 사리함이 나온 바 있다. 모두 수직의 절벽을 이룬 절벽 위에서 서 있는 점이 공통된다. 이들은 대체로 고려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신라시대에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강안형 전탑이 건립되다가 주변지역으로 전파되면서 모전탑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고려시대 이후에 전탑과 모전탑은 산으로 올라가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강안형과 산지형 전탑 또는 모전석탑의 특징은 중부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제천 교리와 정선 정암사 모전석탑은 산지형으로 높은 산 중턱에서 낮은 계곡을 바라보고 있으며 남향을 하고 있다. 정암사 탑은 1층 탑신 남쪽면에 화강암으로 틀을 짜 감실을 만들고 판석 1매를 문으로 사용하여 막았다. 이들은 모두 영양 삼지동이나 안동 대사동 모전석탑과 동일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감실의 위치나 방향 등도 동일하다.

VI. 전탑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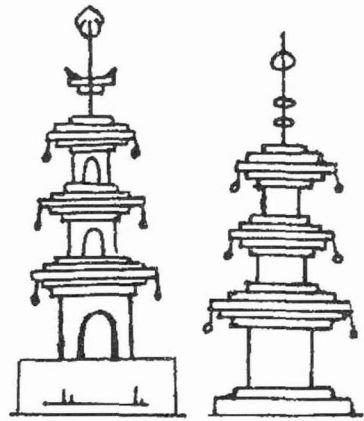
전탑의 구조 역시 석탑과 마찬가지로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다만 현존하는 전탑의 경우 건립 당시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확실한 형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모전석탑을 통해서 원형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칠곡 송림사 전탑의 경우 비교적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세부의 자세한 형태를 제외한다면 대강의 형태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1. 기단부

기단부는 일반적으로 단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현존하는 모전석탑이 거의 단층기단을 가지고 있으며 전탑들도 단층의 형태를 남기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것은 전탑이 목탑에서 비롯되었으며 목탑 기단부는 일반적인 목조건축물과 마찬가지로 단층기단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목탑을 충실히 모방한 백제의 정림사지 5층석탑이나 미륵사지 석탑도 단층기단이며 따라서 목탑에서 나온 전탑도 단층기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도6 동부동 전탑 기단



도7 석장사지와 농소리사지 벽돌의 전탑조각

그러나 안동지역 전탑들의 기단부는 모두 원형을 추정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조탑동 5층전탑은 현재 단층의 석축기단 위에 지대석을 놓고 석재의 초층탑신을 올렸다. 그러나 현지 노인들에 의하면 현재의 기단은 탑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고 50-60년 전까지도 이 탑은 나지막한 언덕 위에서 서 있었다고 하며 그때 기단부는 따로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탑이 본래부터 기단부를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황은 동부동 5층전탑에서도 찾을 수 있다. 동부동 탑은 현재 기단부가 없고 지대석 위에 장대석을 계단상으로 2단을 쌓아 탑신받침을 만들고 그 위에 바로 탑신부를 올렸는데 도6, 지대석이 있는 부분의 지표는 주위의 지표보다 50cm 가량 낮아서 탑은 현 지표면보다 아래쪽으로 움푹 들어간 곳에서 있다. 그러나 『조선고적도보』에 실린 사진을 보면 조사 당시인 1915년 이전에는 주위의 지표면이 탑이 서 있는 위치보다 약간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조탑동이나 동부동 5층전탑의 경우 단층기단이 있었다고 해도 기단부의 높이는 매우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에 건립되었다고 전하는 경주 석장사지나 농소리사지의 전탑재에는 전탑으로 보이는 불탑이 벽돌에 새겨져 있는데 도7 역시 단층기단을 하고 있어 전탑이 단층기단을 가지고 있었음은 의심할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삼국시대 전탑재로 보이는 벽돌에 새겨진 전탑 기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서 전탑 기단이 초기부터 높낮이가 다양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도8 신세동 7층전탑 기단부

통일신라시대의 전탑인 송림사 전탑 기단부는 현재 길이 7m가 넘지만 본래 기단은 4.5m로 초층 옥신의 폭이 2.5m임을 보면 옥개석 한 번의 길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세동 7층전탑의 경우는 팔부신중 또는 사천왕으로 보이는 면석을 동쪽, 남쪽, 북쪽에 각 6장씩 돌려 세

웠으며, 면석 위로는 초층 밑면까지 비스듬히 경사를 이루며 올라가 탑의 기단부로서는 매우 어색하다⁸. 그러나 이 기단부의 형태는 본래의 것이 아닐 것으로 추정되는데 면석이 없는 서쪽면은 시멘트로 처리되었으며 그 중에도 면석의 탱주를 새긴 판석 조각이 섞여 있다.

고려시대의 것으로 알려진 안동 북후면 옥산사 전탑지에는 현재 화강석제의 면석이 사방으로 돌려진 기단 부분만 남아 있는데 기단부의 한 변 길이는 240cm, 높이는 50cm 정도이다. 이와 유사한 기단의 형태는 제천 장락동 모전석탑, 영양 봉감동 모전석탑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전탑 기단의 일반적 형태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2. 탑신부

탑신부는 옥신석과 옥개석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옥신석과 옥개석은 초층 옥신석이 2층 이상의 탑신부에 비해 비교적 높는데 이는 감실의 설치 때문으로 보인다. 2층 이상의 탑신부를 보면 옥신의 높이가 옥개석에 비해 낮으며 마지막 층까지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와 옥신의 높이가 위로 올라갈수록 차츰 감소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신세동 7층전탑과 제천 장락동 모전석탑이 대표적이며 당(唐)의 밀침식 전탑과 전체적인 풍이 비슷하다.

조탑동 5층전탑은 초층을 돌을 이용하여 석축의 형태로 쌓았는데 이로 인해 이 탑을 순수한 전탑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²⁰



도 9 동부동 5층전탑,
옥개석의 기와

대부분의 전탑들은 초층에 감실을 만들고 남쪽 또는 동쪽으로 문을 냈는데 대체로 남쪽이 많다. 감실은 불상을 모시기 위한 것으로 현재도 불상을 모시고 있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은 비어 있다. 이는 고층누각식 목조탑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한 데서 연유한다고 생각된다. 신라에서 처음 나타난 고층의 모전석탑인 분황사 모전석탑은 사면으로 감실을 두었는데, 이는 중국의 당대 전탑들이 대부분 사방으로 문을 만들어 내부로 통하며 중앙에 기둥을 받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통일신라시기에 건립된 전탑은 신세동 7층전탑을 제외하면 대부분 높리와 폭이 1m 내외로 소형이다. 제천 장락동 7층모전석탑은 남과 북 양쪽에 감실을 두었다. 이처럼 남북으로 감실을 둔 것은 바람의 배치가 남북의 축을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중문에서 탑을 거쳐 금당으로 이어지는 축선을 생각할 때 자연스러운 것이다. 중국의 탑에서 그러한 예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감실의 문들은 화강석으로 짚으며 문은 모두 없어졌다. 그러나 분황사 모전석탑이나 장락동 모전석탑 등으로 미루어 보아 감실문은 화강석의 판석으로 달았음을 알 수 있다. 분황사나 장락동처럼 좌우의 문을 따로 만들어 분합문으로 된 것도 있고 정암사 탑처럼 한 장의 판석으로 막아 여닫을 수 없는 것도 있다. 송림사 전탑과 일부 모전석탑은 감실이 없는데, 송림사 탑의 경우는 본래 초층 남쪽면에 감실이 있던 것을 조선 말기에 수리하는 과정에서 감실 문을 벽돌로 막은 것임이 해체 복원 과정에서 밝혀졌다.

감실 문 좌우에는 분황사 모전석탑, 조탑동 5층전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조의 금강역사를 세운 예도 있으며 동부동 5층전탑에서는 2층 옥신석 남면에 금강역사를 새긴 화강암 제 석판을 끼워 넣기도 했다.

20 박홍국은 이를 석·전탑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탑으로 분류하였다(박홍국, 앞의 책, p.26).



도 10 의성 탑리 5층석탑, 옥개석

옥개석은 전탑의 형태적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다. 현재 신세동 7층전탑의 옥개석 일부에는 기와가 남아 있는데 이는 전탑 옥개석에 본래 기와가 덮여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예로 동부동 5층전탑도⁹이 있는데 이는 『조선고적도보』 4권에 실린 1915년 당시의 사진에서 전층의 옥개석에 기와가 덮여 있는 데서 비롯한다. 그러나 이 외의 전탑에는 기와의 흔적이 없다. 또한 신세동 탑의 옥개석 하단 모서리에는 2단의 계단식 화강석판을 벽돌 대신 받치고 있는데 이는 옥개석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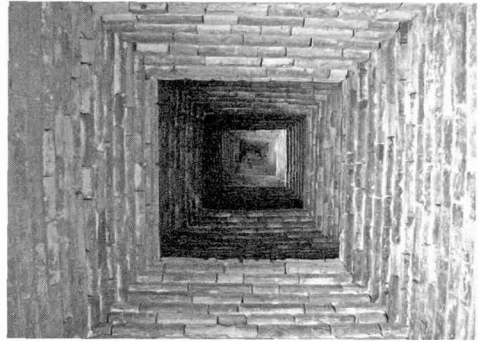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신라 석탑 중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알려진 의성 탑리 5층 모전석탑도¹⁰이나 이후에 건립된 같은 유형의 모전석탑들이다. 이들은 진흥섭이 제2유형으로, 그리고 박홍국이 석탑계 모전석탑으로 분류한 석탑으로 전탑을 모방하면서도 전형적인 신라 석탑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이 탑들은 모두 옥개석을 모두 계단식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그 원형인 전탑 옥개석에 기와가 없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라 전탑의 조형인 당의 전탑에서도 기와가 있는 것은 없으며 석장사지 출토의 벽돌이나 농소리 출토의 벽돌에 새겨진 전탑에서도 옥개석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탑의 옥개석은 처음부터 기와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신세동 7층전탑과 동부동 5층전탑 옥개석의 기와는 조선시기에 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올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탑신부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신세동 전탑에서 볼 수 있다. 신세동 전탑은 초층 감실의 천정부에서 최상층인 7층 옥개석 상부까지 1변에 30cm 정도의 방형 구멍이 관통되어 있다¹¹. 이는 탑을 축조할 당시 중심을 잡기 위해 목제 찰주를 세웠던 자리로 보이는데 찰주를 세우고 그를 중심으로 벽돌을 쌓아 올리고 완성된 후 찰주를 제거하였을 것이다. 또 최상부의 찰주공은 상륜을 설치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경우는 대부분 전탑의 내부가 초층부터 최상층까지 통형으로 뚫려 있으며 옥개



도 11 신세동 7층전탑, 감실 내부 천정



도 12 중국 서안 향적사의 선도화상 제자탑 내부

석이 밖으로 돌출된 부분은 내부도 안으로 돌출시켜 역학적인 균형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². 그러나 한국의 전탑들은 중국에 비해 소형으로 내부를 비우면서 쌓기에는 내부 공간이 너무 좁아 불가능했을 것이다.

3. 상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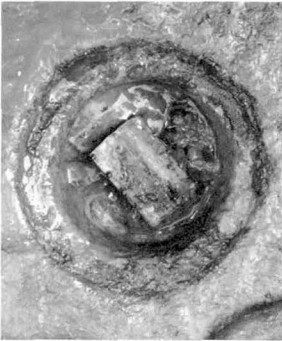
현재 전탑과 모전석탑을 통틀어서 상륜부가 남아 있는 것은 송림사 5층전탑과 정암사 7층 모전석탑 2기뿐이다. 이 두 탑은 모두 청동제 상륜부가 남아 있다. 또 제천 장락동 7층 모전석탑에서도 청동제의 연꽃이 투각되어 있는 파편이 수습되어 청동제 상륜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남은 상륜부에서는 노반, 복발, 양화, 보륜, 수연, 용차, 보주 등이 확인되고 있어 상륜의 형태는 신라 석탑의 상륜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동에서 가장 오래된 읍지인 『영가지』에는 안동 신세동 7층전탑과 동부동 5층전탑의 탑 위에 금동의 장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금동제 상륜부가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²¹

이런 점으로 미루어 전탑이나 모전석탑에는 일반적으로 청동제 또는 금동제 상륜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²¹ 『永嘉誌』 卷6, 古塔條의 法興寺塔塔 法林寺塔塔 설명에 탑 위에 금동 장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도 13 안동 임하사지 전탑, 심초석 발굴 모습



도 14 심초석의 사리공과 사리함 출토



도 15 운문사 작업전에서 나온 심초석

4. 사리장치의 수납

현재 조사된 전탑 또는 모전석탑에서 사리장치가 출토된 예로는 전탑 3기, 모전석탑 4기 등 모두 7례이다.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임하사지 전탑지: 기단부 하부 지하의 부정형 6면체의 화강석 윗면에 원형의 사리구멍이 있고 그 내부에서 맞배지붕의 가옥형 은제 사리함과 내함 은제 병에 청색 유리를 씌운 사리병, 은제 고리 등이 출토되었다도13,14.²²

2) 청도 운문사 전탑: 현재 작압전이라는 목조 건물로 남아 있는데 작압전 해체 복원시 건물 내의 석불대좌 밑에서 함통 6년명(865) 사리석함과 사리구가 수습되었다.²³ 또 운문사 내에는 작압전에서 나왔다는 방형 사리공이 있는 심초석이 있다도15. 이로 미루어 작압전 내에서 발견된 사리함은 전탑 지하의 심초석에 있던 것이 후대의 수리과정에서 발굴되어 불전 안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함께 출토된 다른 사리구의 내용으로 이 탑은 1494년과 1642년에 보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송림사 7층전탑: 2층 옥개석에서 거북형으로 정교하게 조각된 화강석제 석함이 나왔으며 그 안에서 금동방형 사리기를 비롯하여 유리배, 수목형 금구, 옥류 등 통일신라시대의 것으

²² 임세권, 『임하사전탑지』(안동대학교박물관, 1988).

²³ 金吉雄, 「운문사 작압전출토 사리구에 대하여」, 『경주사학』 9(동국대학교 사학회, 1990), p.65.

로 보이는 유물이 발견되었고, 상륜부 기저부에서는 화려한 고려청자합자, 시대를 달리하는 유물이 각 층에서 발견되어 적어도 고려시대에 상륜부가 해체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탑은 조선시대 말기에도 대대적으로 수리되었음이 확인되었다.²⁴

4) 분황사 모전석탑: 2층과 3층 사이 석함 속에서 사리구가 발견되었으며 승녕통보(崇寧通寶), 상평오주(常平五珠) 등 고려시대의 화폐가 발견되었다.²⁵ 이로써 창건 당시의 사리장치에 추가하여 고려시대에 이르러 보수하고 옛 돈들을 봉납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5) 장락동 7층모전석탑: 5층 옥신부에서 길이 50-54cm, 높이 31cm의 부등변 방형의 화강암재가 발견되었으며 이 돌의 중심부에는 한 변의 길이 13.5cm, 깊이 4.5-5.5cm의 방형 구멍이 있었다. 이는 사리함을 넣기 위한 시설로 보이는데 유물은 없었다.²⁶

6) 정선 정암사 7층모전석탑: 3층 옥신부터 기단부까지의 사이에서 5개의 탑지석이 발견되었으며 기단부 최하단석 밑의 적심부에서 청동합, 은제외합, 금제외합 등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다.²⁷

7) 영양 삼지동 모전석탑: 3층으로 추정되는 이 탑은 현재 2층만 남아 있는데 2층 옥개석 상부에서 석제 사리함과 사리 1과가 출토되었다.²⁸

위의 사례에서 주목되는 것은 탑의 기단 하부 지하에 있는 목탑의 심초석과 유사한 석제함에서 사리용구가 출토된 예들이다. 이는 임하사지 전탑지를 비롯해서 운문사 전탑, 정암사 모전석탑 등이다. 또한 나머지 전탑이나 모전석탑에서 나온 사리용구들도 심초석과 유사한 석제함 내에서 발견되었는데 송림사 전탑과 분황사 모전석탑, 장락동 모전석탑, 삼지동 모전석탑 등이 모두 같다. 그런데 옥개석이나 옥신석 내에서 출토된 것들은 모두 신라시대의 것에 고려 이후의 유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삼지동 모전석탑은 고려시대 건립으로 알려져 있다.²⁹

24 김재원, 「송림사전탑」, 『진단학보』 29·30 합집(진단학회, 1966), pp.1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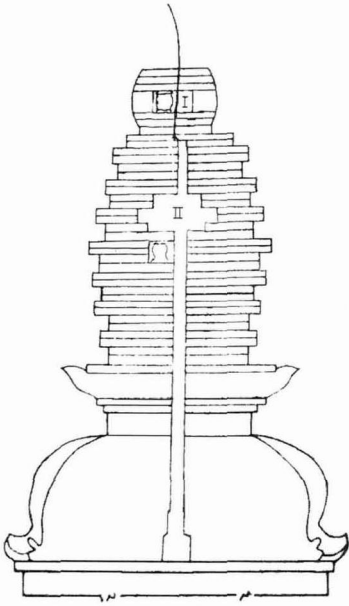
25 『분황사석탑』(문화재관리국, 1992).

26 진홍섭, 「제천장락리모전석탑사리공」, 『고고미술』 90(한국미술사학회, 1968).

27 정영호, 「정암사수마노탑의 조사」, 『고고미술』 3(한국미술사학회, 1960).

28 신대현, 「영양 삼지동 모전삼층석탑 사리장엄 소고」, 『문화사학』 11·12·13호(한국문화사학회, 1999), pp.453-463.

29 신대현은 주27에서 삼지동 모전석탑의 연대를 8-9세기로 보고 있다. 이 견해는 산지형 모전석탑도 통일신라시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 16 송악사탑의 상륜부에 있는 천궁 위치도

이는 전탑의 사리함(舍利函)이 본래는 기단부(基壇部) 지하의 심초석(心礎石)에 안치되어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사리함을 심초석에 안치하는 것은 목탑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황룡사 9층탑이 대표적이다. 또한 중국의 목탑이나 전탑은 모두 지하에 석실을 만들어 사리함을 안치하는데 이를 중국에서는 지궁(地宮)이라 한다.

중국 목탑에서 조사된 대표적인 지궁은 서안 교외의 법문사(法門寺) 탑이다. 이 탑은 본래 동한(東漢)시대에 건립된 목탑이었으나 명대(明代)에 전탑으로 다시 쌓았으며 1981년 도괴되어 재건축을 위해 조사하던 중 지하의 사리안치를 위한 지궁이 발견되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³⁰ 한국의 전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린성(吉林省) 창바이현(長白縣)의 발해 영광탑도 지하에 설치한 지궁이 조사되었다.³¹ 이처럼 지하에 사리 안치를 위한 공간을 설치

하는 것은 목탑이든 전탑이든 중국 불탑의 기본 양식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전탑들이 지하에 사리장치를 안치한 것은 이와 같은 중국 불탑의 영향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심초석의 형태로 사리 안치시설을 매장한 것은 목탑의 전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중국 불탑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에 들어온 이후 목탑의 전통을 이어받은 한국적 전탑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또한 상륜부 아래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유물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천궁(天宮)이라 부른다. 천궁 시설이 조사된 대표적인 예로 허난성(河南省) 숭산(嵩山)의 송악사(嵩岳寺) 탑을 들 수 있다(도 16). 이러한 천궁의 전통은 송림사(宋林寺) 전탑의 상륜부 아래에서 확인된다. 분황사(汾皇寺) 모전석탑이나 송림사(宋林寺) 전탑, 장락동(張拉克洞) 모전석탑 등에서처럼 탑신부(塔身部) 내부의 사리장치 저장시설들은 내부에서 고려 이후의 유물들이 함께 나타남으로써 최소한 고려시대에 수리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시설들이 건립 당시부터 있던 것을 고려시대에 수리하면서 위치는 그대로 유지한

³⁰ 신대현, 「중국 섬서성 법문사탑 사리장엄 소고」, 『실학사상연구』 14(무악실학회, 2000), pp.321-338.

³¹ 申榮勳, 「渤海國의 塔塔」, 『建築歷史研究』 3(한국건축역사학회, 1993), pp.157-162.

채 유물만 추가한 것인지 아니면 지하에 있던 심초석을 석탑의 사리 안치와 같이 탑신부로 옮겼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안동 임하사지 전탑처럼 지하에서 발견된 예와 중국의 예들을 비교하여 사리장치의 본래 위치는 지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VII. 맺음말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안동지역과 경북 북부지역의 전탑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전탑과 같은 계통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중국 전탑의 한국 전래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삼국통일 이전 7세기 전반기에 귀국한 유학생들에 의해서 경주지역으로 들어왔으며, 두 번째는 통일 이후 8세기 초를 전후해 당에서 귀국한 승려들에 의해서 안동지역 내지는 경북 북부지역으로 들어온 것이다.

따라서 안동지역의 전탑은 경주지역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불교세력들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양이나 소백산맥 북쪽의 제천 정선 등지의 모전석탑들도 전탑과 같은 성격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시대적으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탑과 완전히 같은 형태로 축조한 모전석탑은 벽돌의 공급이 원활치 않거나 주변에 벽돌재를 대체할 석재가 풍부한 경우 전탑을 대신해서 세워질 수 있으며, 이때 모전석탑과 전탑을 구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산지형 전탑이나 모전석탑은 강안형에 비해서 규모가 매우 작고 일부는 단층화된다고 하는 것은 감실이 생략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나말여초 이후 강안형에서 산지형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전탑의 구조는 중국의 전탑 양식을 비교적 충실히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단층의 기단과 기단 아래 지하에 심초석을 두고 심초석 안에 사리함을 안치하는 목탑의 전통을 잇고 있다는 점은 경주지역이나 안동지역에서 함께 나타나며 특히 안동에서는 임하사지 전탑지에서 사리장치가 안치된 지하 심초석이 조사된 바 있다. 사리장치의 출토는 분황사나 송림사의 전탑 경우처럼 탑신부에서 출토되기도 했지만 모두 고려시대의 유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후대의 변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주제어(key words) __ 佛塔(Pagoda, Stupa), 塼塔(Brick Pagoda)

▣ 투고일 2004년 7월 20일 | 심사일 2004년 7월 31일 | 심사완료일 2004년 8월 10일 ▣

국문초록

한국의 전탑은 안동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져 왔으나 그리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경주지역에서도 삼국시대 말기에 상당수의 전탑이 축조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전탑도 경주에서 안동으로 또는 그 반대의 경로로 전파되었다는 주장들이 나온 바 있다.

전탑과 모전석탑 특히 전탑과 같은 형태로 축조하였으나 재료만 석재를 쓴 소위 제1유형의 모전석탑은 전탑과 구분해 설명할 수 없으며 시기도 선후를 구분할 수 없다. 이는 벽돌을 제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주변에서 벽돌형으로 잘라 쓸 수 있는 석재가 풍부할 경우 모전석탑으로 세워졌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전탑과 제1유형의 모전석탑을 구분해서 다루는 것은 무의미하다.

전탑의 구조적 특징은 단층기단과 초층의 감실 설치, 지하 심초석의 사리 안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중국전탑의 특징과 삼국시대 목탑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러나 탑신부에서 출토되는 사리함들이 있는데 이들은 고려시대 이후의 유물을 내어놓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고려시대 이후 대대적인 수축시에 추가되었을 가능성과 중국 전탑에서 보이는 천궁구조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

옥개석에는 기와가 올려져 있었다는 설이 일반적으로 지지되어 왔으나 현재 유존하는 모전석탑의 옥개석 구조와 중국 당대 이전의 전탑, 그리고 삼국시대 전탑재에 새겨진 전탑그림 등을 통해 볼 때 옥개석에는 본래 기와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전탑이 중국을 대표하는 탑의 양식이고 한국 전탑의 양식이 중국 당대 이전의 전탑과 유사하다는 점을 주목하면 경주의 전탑과 안동의 전탑들이 모두 지금까지 중국에서 왔고 경주의 전탑들이 7세기 전반기, 특히 선덕여왕 시기에, 안동의 전탑들이 8세기 전반 이후에 각각 중국에서 전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안동지역의 전탑은 풍기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이 귀국한 이후 7세기 말에서 8세기 전반에 걸쳐 많이 귀국한 유학생들에 의해서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당시의 불교계 정황으로 보아 매우 높다.

안동지역의 전탑은 세워진 지리적 환경으로 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강가에 인접하여 세워진 것(강안형)이고 다른 하나는 넓은 들이 내려다보이는 산 위에 세워진 것(산지형)이다. 대체로 강안형은 산지형에 비해 규모가 크며 연대도 빠른 것으로 보이며 산지형은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시대에 주로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Introduction and Transformation of Brick Pagodas in Korea

Yim Se-gweon

Brick pagodas were introduced in Korea through two separate waves from China. The first wave was brought about by monks who returned from China to Silla during the mid-seventh century in the Three-Kingdoms period. After the Unification the second wave saw the construction of brick pagodas around Andong and North Gyeongsang area by, the monks who returned from Tang China in the middle of the eighth century. These monks, distinctive from the Buddhist sect in Gyeongju area, were probably the disciples of the master Uisang, who founded Buseok Temple in Punggi, North Gyeongsang Province.

In the meantime, stone pagodas in Yeongyang, Jecheon and Jeongseon area took exactly the same shape and form as that of brick pagodas, and the former existed during roughly in the same period as the latter. Stone pagodas may have been built in place of brick pagodas when bricks were not readily available or where raw stone was abundantly quarried. Therefore it is safely assumed that there was not much modal difference between stone and brick pagodas apart from their respective building materials.

Brick pagodas can also be divided into two groups in terms of their location. There are pagodas built by the river, while there are those that stand on hill tops or mountains. The latter group, mostly of the Goryeo period, is dated later than those by the river.